



#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

코로나19로 1만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. 예배당을 떠난 성도는 30%가 넘습니다.  
목숨처럼 생명으로 여겼던 예배의 자리는 어디로 갔습니까?

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.  
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.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.

주일예배, 새벽예배, 수요일예배, 구역예배, 주일학교, 직장예배, 가정예배, 개인큐티...  
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중수했던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.  
예배가 살아야, 개인이 살고, 교회가 살고, 나라가 삽니다.

이제 **“다시 예배”**입니다.

